

# 희곡 『햄릿』(*Hamlet*)의 성차별적인 단어에 대한 번역 분석

홍은영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박통합과정 졸업

목차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텍스트 분석
  - 3.1 분석 대상 및 방법
  - 3.2 호칭에 대한 표현
  - 3.3 성적인 표현
- 4 결론

한국에서 셰익스피어 번역은 오랫동안 남성 번역가들이 주를 이루어 작업을 해 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당연히 남성의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독자들은 오랜 기간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번역작품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셰익스피어 햄릿의 번역본 비교를 통해 작품 안에서 성차별적인 단어가 어떤 식으로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번역가의 성별 및 연구 성향을 기본으로 하여 실제 번역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남성 번역가는 성차별적인 단어가 그대로 드러나는 번역을 하였고 여성 번역가는 우회하는 표현을 사용해 원문의 성차별적인 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번역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현대 번역은 더 이상 단어 대 단어의 변환을 고수하는 전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원문 내에 숨어 있는 권력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에 발맞추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번역이 많이 등장하여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문핵심어: 『햄릿』, 셰익스피어, 젠더 번역, 페미니스트 번역, 여성어

## 1 서론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역되었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번역가들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번역하였고, 작가의 위상만큼이나 지금도 많은 번역물이 출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 살펴본 4가지의 번역본만으로 셰익스피어 작품 내의 성차별적인 단어에 대한 분석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실제 번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번역의 개념은 나날이 바뀌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번역이론에서 보는 번역

은 단순하게 ‘단어 對 단어(word to word)’를 옮기거나 ‘의미 對 의미(sense for sense)’의 개념이었다. 이후 ‘직역(literal)’, ‘의역(free)’, ‘충실한 번역(faithful translation)’에 대한 논쟁으로 번역에 대한 논쟁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이론편에서 도출된 번역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작가의 문체를 그대로 반영하여 원문과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번역가가 원문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전혀 반영할 수 없고 이러한 일은 원문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다.

조르주 무냉(Georges Mounin)은 1955년 『부정(不貞)한 미녀들』(*Les Belles Infidèles*)을 통해 텍스트별로 적용해야 할 번역 방식이 다르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로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언어가 낯설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프랑스로 생각한 후 프랑스로 작성된 것처럼 번역하기(domestication)이고, 둘째, 독자가 번역문을 읽으면서 외국어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낯설게 번역하기(foreignization)이다. 특히 첫 번째로 언급한 domestication 번역은 니콜라이 고골(Nikolai Gogol)이 주장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투명한 유리되기” 형태의 번역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sup>1</sup>

하지만, 탈구조주의 시대의 등장으로 기존의 번역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번역이론 또한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권력 구조를 인정함과 동시에 번역가의 역할 또한 번역문을 재창조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로트만은 “번역 작업을 통해 기존의 경계에 대한 변환을 해야 한다. 번역의 기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등가 번역은 이상적인 번역도 아닐뿐더러 실제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번역의 특성이 텍스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발현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텍스트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주장한다.<sup>2</sup> 바르트 역시 자신의 논문 “저자의 죽음”을 통해 문학 텍스트의 절대적인 권력은 저자가 아닌 언어라고 이야기하며 이에 따라 텍스트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sup>3</sup>

1 조르주 무냉, 선영아 역, 『부정한 미녀들』, 아카넷, 2015, 135-137쪽.

2 Lotman Yuri M.,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Translated by Ann Shukma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p.68.

더불어 같은 의미에서 번역 작품을 읽는 독자 역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원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모국어로 된 번역문 ‘만’을 읽어야 하는 독자와 원문을 이해할 수 있지만, 모국어로 된 글을 읽는 독자이다.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온전히 번역가의 해석에만 의존하여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번역가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독자가 받아들이는 인물의 성격이나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번역가는 더 이상 작가 뒤에 숨은 존재가 아니라 엄연히 작가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작품을 새로이 창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프랑스의 소설가인 시몬 드 보부아르(Simon de Beauvoir)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에서 나온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On ne naît pas femme, on le devient).”<sup>4</sup>라는 말은 페미니즘에서 너무나 중요한 명제이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부아르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도 문학번역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 번역가, 학자들은 전통적인 남성의 권위에 맞서고, 가부장적인 언어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번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페미니즘 번역이론은, 이러한 텍스트 해석을 통해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번역이론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번역방법을 주장한다. 즉, 원문을 기본으로 하여 번역가가 다시 쓰기(rewriting)를 통해 이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다드는 “번역은 명료한 표현을 기반으로 한 단순한 등가적인 해석이기보다는 차이가 나타나는 해석의 변형이다”라고 하였다.<sup>5</sup> 마사르디에-케니는 “텍스트에서 여성성을 드러내고 가치 있도록 하는 것, 여성 등장인물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려는 번역가들의 욕구가

3 Barthe Roland, *Image-Music-Text*, Trans. Stephen Heath, London: Fontana, 1977, pp.143, pp.146-147.

4 시몬 드 보부아르, 이희영 역, 『제2의 성 I』, 동서문화사, 2018, 340쪽.

5 Godard Barbara, “Translating (as) Woman.” *Essays in Canadian Writing* 55, 1995, p.77.

많은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페미니즘 번역에 대해서 정의하였다.<sup>6</sup> 뒤라스 역시 “여성들은 수 세기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왔고, 여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여성들이 번역을 할 때 이러한 어둠을 번역하지만 남성들은 번역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정교화된 이론적 바탕에서부터 시작한다.”<sup>7</sup>라고 설명하였다. 체임벌린의 경우 오히려 ‘부정한 미녀들’ 같은 말이 여성 비하라고 보고 있으며, 텍스트 간의 위계질서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다. 체임벌린은 남성들이 여성의 성을 통제하여 번역과 관련된 은유가 역사 내에서 가족관계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입증했다. 또, 번역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도 보여주었다.<sup>8</sup>

이처럼 페미니즘 번역이란 남성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성을 통해 전달되던 이데올로기, 고정관념 등을 무너뜨리는 페미니즘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번역의 개념이 단순하게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옮기는 작업으로 한정된 것에 반해, 번역가의 개입을 어느 정도 허용하여 여성의 목소리가 텍스트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번역가의 다시쓰기(rewriting)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번역 이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번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텍스트 분석

#### 3.1 분석 대상 및 방법

셰익스피어 작품의 등장인물은 모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다. 특히 셰익

6 Massardier-Kenny, eds., Françoise Massardier-Kenny, *Translating Slavery: Gender and Race in French Women's Writing, 1783-1823*, Kent, Ohio: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94, p.17.

7 Duras Marguerite, “An Interview”, eds., Elaine Marks and Irene de Courtivron, *New French Feminisms*, trans. by Susan Husserl-Kapit,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0, p.174.

8 Flotow Louise Von, *Translation and Gender: Translating in the “Era of Feminism.”*, Manchester: St. Jerome, 1997, p.42.

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꼽히는 『햄릿』(*Hamlet*), 『리어왕』(*King Lear*), 『맥베스』(*Macbeth*), 『오셀로』(*Othello*)만 하더라도 제목에 모두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들은 모두 왕 혹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햄릿』의 경우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번역될 만큼 사람들에게 친숙하다. 이 때문에 햄릿은 번역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작품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sup>9</sup>을 하거나 혹은 무대공연을 위한 번역본을 분석한 연구<sup>10</sup>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햄릿』 번역에 대한 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번역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일부 작품은 여성을 성(性)의 도구로만 한정 지으면서 여성 자체를 음란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햄릿의 유명한 독백인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다.”라는 문구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숙부와 결혼하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담겨 있는 대사로서 이는 어머니를 비롯한 일반 여성에게로 이어지는 여성 혐오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햄릿』 번역본 중 4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가지 번역본의 선정 이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9 조영미, 「셰익스피어 번역의 어제와 오늘: 『햄릿』을 중심으로」, 『안과 밖』, 제10권, 영미문학연구회, 2001; 최종철, 「셰익스피어 극작품의 운문번역 = 햄릿의 제3독백」, 『번역문학』, 제4집,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백정국, 「학술적 셰익스피어 번역을 옹호하며: 『햄릿』번역에 대한 소고(小考)」, 『고전·르네상스영문학』, 제24권 2호, 한국중세근세영문학회, 2015; 김종환, 「햄릿의 심리와 여성혐오」, 『신영어영문학』, 제32호, 신영어영문학회, 2005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10 김동욱, 「지역화로 재생산된 셰익스피어: 번역(안)/각색된 『햄릿』을 중심으로」, 『셰익스피어 비평』, 제48권 2호,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12; 김옥란, 「5·18 서사로서의 〈햄릿〉과 기국서의 연극사적 위치: 〈기국서의 햄릿〉 연작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1; 안장환, 「이해량의 리얼리즘과 연출 관점에 대한 소고—텍스트 “햄릿” 공연 연출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22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11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표 1. 햄릿 번역본

| 구분  | 번역가 | 출판년도               | 출판사   | 선정 이유   |
|-----|-----|--------------------|-------|---|
| TT1 | 최종철 | 2014               | 민음사   | 셰익스피어 번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출간하는 점  |
| TT2 | 최재서 | 2014 <sup>11</sup> | 올재    | 영미문학 연구회의 번역평가사업단의 평가에서 “햄릿의 번역에 있어서는 독보적”이라는 평가 <sup>12</sup> 를 받음                               |
| TT3 | 권오숙 | 2018               | HUiNE | 『성차에 따른 성담론 번역 양상 비교』와 같은 연구를 통해 셰익스피어 작품 안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번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함 |
| TT4 | 신정옥 | 2007               | 전예원   | 이미 1980년대에 여성으로서 셰익스피어 전집을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신정옥의 번역을 높이 평가하고자 함   |

권오숙(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았듯 번역가의 성차에 따른 단어 선택에는 극명한 차이가 난다. 물론, 본 연구의 목적이 번역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의 경우 남녀 번역가의 인원수 비율을 다르게 할 경우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남녀 인원수를 같게 하였다. 또한,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거나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번역본을 고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히 오역을 지적하기 보다는 다양한 번역본을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여 관련 담론을 이끌어내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번역을 하고자함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 3.2 호칭에 대한 표현

- 11 최재서의 번역은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위하여 2014년 올재의 출판본을 사용하였다. 올재 번역본의 서문에서도 서술하였듯 최재서의 번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출판하여 당시의 단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12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창비, 2005, 546쪽.

호칭 번역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칭은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어법이 매우 다르고 특히 한국어의 경우 높임말이 발달하여 이러한 호칭어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Brown과 Gilman의 호칭 이론에 따르면, 인칭대명사 T<sup>13</sup>와 V는 수직적인 “권력”과 수평적인 “연대”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성(性), 가족 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화를 주도한다.<sup>14</sup> 이처럼, 단순히 상대방을 부르는 것 뿐만 아니라 호칭을 통해 대화 안에서 권력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Charles Dickens의 소설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에서 이러한 호칭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등장인물 Mr. Pumblechook가 Pip을 부르는 호칭은 ‘boy → my dear friend → sir’로 바뀌는데 이는 Pip의 신분상승과 관련이 있고 작가는 이러한 변화를 호칭어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대화 안에서 권력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호칭이 실제 『햄릿』의 번역본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드러났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ST]<sup>16</sup> Laertes And, sister, as the winds give benefit (p.28)

[TT1] 레어티스 그리고 누이야, 바람이 도와주고 (p.333)

[TT2] 레어티즈 그런데, 너 잠만 자지 말고, 풍세 좋아 (p.71)

[TT3] 레어티즈 동생아, 순풍을 타고 오는 (p.39)

[TT4] 레어티즈 오필리아, 알맞게 바람이 불고 (p.41)

13 Brown과 Gilman의 호칭 이론에서 ‘T’는 친밀과 낮춤의 뜻, ‘V’는 공손의 뜻을 가지고 있다.

14 Brown R & Gilman A.,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ed., Thomas A. Sebeok,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60, pp.253-276.

15 Holmes. J,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London: Longman, 2001, p.3.

16 본 연구에서 ST(Source Text, 출발어)는 영어이고, TT(Target Text, 도착어)는 한국어이다.



(1)에서는 레어티즈가 자신의 여동생 오필리어를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한다. 영어단어 ‘sister’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 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TT1] 번역에서는 ‘누이’라고 번역함으로 써 한국 독자들의 경우에는 영어의 ‘sister’와 등가를 이루는 ‘여동생’이라는 단어 대신 우리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이미지가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 이다. [TT2]는 ‘너’, [TT3]은 ‘동생’, [TT4]는 ‘오필리아’로 번역하여 [TT1]의 번 역에서 우려한 이미지의 왜곡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누이’라는 단어가 남성 이 여성에게 사용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남성적인 언어로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 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언어는 이미지이다. 단어의 뜻에 따라서 이미지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특 정한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정명중은 “한국 문화권에서 ‘누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실존이라기보다 특별한 아우라를 발산하는 이미지”<sup>17</sup>라고 주장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번역은 단순히 단어와 단어를 번역하는 작업이 아니 다. 번역은 고도로 엄밀한 해석의 과정임과 동시에 비평의 과정이며 의미 생산의 과정이다. 즉, 다시 읽기와 다시 쓰기의 과정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저항과 협상 을 통한 텍스트의 새로운 의미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sup>18</sup>

(2) [ST] Polonius Affection! pooh! You speak like a green girl,  
Unsifted in such perilous circumstance. (p.33)

[TT1] 폴로니우스 애정? 흥, 철없는 계집처럼 말하는군,  
위태로운 상황을 겪어 보지도 않고서. (p.337)

[TT2] 폴로니어스 진정이라? 푸우! 이런 험난한 등사엔 쌀알이 뿔지

17 정명중, 「김남천 소설 속의 ‘누이’ 표상」,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1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64쪽.

18 안미현, 『경계횡단으로서의 번역』, HUiNE, 2017, 7쪽.

뉘가 뉘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아주 철부지 어린애  
같은 수작이로구나. (p.74)

[TT3] 폴로니어스 사랑이라고! 허, 이런 참! 위험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철부지처럼 말을 하는구나. (p.44)

[TT4] 폴로니어스 애정을? 허허, 넌 매서운 고비를  
겪지 않았으니 철딱서니 애처럼 말하는구나.  
(p.46)

(2)에서는 폴로니어스가 자신의 딸인 오필리어를 부른 호칭 ‘green girl’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형용사 ‘green’의 뜻에는 ‘(사람이) 풋내기’라는 뜻<sup>19</sup>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green girl’이라 함은 다 자라지 않은 소녀를 뜻하는 말인데, [TT1] 번역의 경우 ‘계집’이라는 여자를 낮추어 부르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런 식의 번역은 자칫 번역문만 접하는 독자들에게 오필리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이트<sup>20</sup>에 따르면 ‘계집’이란 단어는 여자 혹은 아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한편, ‘계집’을 접두사로 사용하는 단어들 역시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sup>21</sup>들이 대부분이다.

(3) [ST] Polonius Now, I went round to work.

And my young mistress thus I did bespeak; (p.67)

[TT1] 폴로니우스 아뇨, 전 곧장  
작업에 들어가 딸년에게 말했지요. (p.364)

---

19 별도 표기가 없는 특정 단어에 대한 정의는 모두 네이버 사전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20 <https://opendict.korean.go.kr/main>

21 계집난봉, 계집불이, 계집사람, 계집 장사 등.

[TT2] 폴로니어스 아니올시다. 신은 곧 일을 착수했더랍니다.  
그래서 딸년을 보고 이렇게 타일렀습죠. (p.98)

[TT3] 폴로니어스 소신은 곧바로 손을 써 딸애를 타일렀습니다. (p.78)

[TT4] 폴로니어스 어찌 생각하시겠나이까? 안될 일이오, 신은 바로  
손을 써, 딸에게 타일렀습니다— (p.81)

(2)에서와 마찬가지로 (3)에서도 ‘딸’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영어단어 ‘mistress’에 해당하는 대응어인 ‘딸년’은 ‘자신 혹은 다른 집의 딸을 낮추어 부르는 단어’이다. [TT1], [TT2]는 모두 ‘딸년’이라고 낮추어 번역하였으나, [TT3]과 [TT4]는 ‘딸애’와 ‘딸’로 번역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계집’이라는 단어는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이다. 근대국어에서 ‘년’이라는 단어의 의미 하락은 ‘계집’이라는 단어와 맞물려 ‘딸년’ 혹은 ‘계집아이’와 같은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가 탄생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sup>22</sup> 또한, ‘mistress’라는 단어는 본래 ‘여주인’을 일컫는 단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mistress’에는 성적인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에는 번역가가 단어의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아버지에게 딸의 존재는 ‘고명’ 혹은 ‘애완’과 같은 의미였다. 이는 아버지가 딸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다. 라캉의 주장에 따르면 딸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주체적인 삶이 가능한 사람이고 딸은 그런 아버지를 이상화하고 숭배한다.<sup>23</sup>

(4) [ST] Ophelia My lord, he hath importun'd me with love  
In honourable fashion. (p.34)

22 김미현 외,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1』, 보고사, 2013, 259쪽.

23 위의 책, 294쪽.

[TT1] 오필리어 아버지, 그분은 사랑을 애걸하셨어요,  
명예로운 방법으로. (p.338)

[TT2] 오필리아 요사이 동궁전하께서 저에게 여러 차례 진정(眞情)을 말씀  
하신 일이 있어요. (p.74)

[TT3] 오필리어 아버님, 왕자님은 정말 진실한 태도로  
구애를 하셨어요. (p.45)

[TT4] 오필리어 아버님, 왕자님께선 진지한 표정으로  
사랑을 고백하셨답니다. (p.46)

(4)에서는 오필리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햄릿을 지칭하는지 살펴본다. 하거루드(Joan Haugerud)는 성경에서 하느님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를 지적하였다. ‘하느님 아버지(God the Father)’, ‘우리 주 하느님(the Lord our God)’, 대명사 ‘그분(He)’ 같은 단어들은 굉장히 남성적인 단어이다. 이러한 남성적인 단어를 변형하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남성만을 지시하는 단어인 형제(brother)와 왕(king) 같은 단어를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일반적인 단어로 바꾸는 것이다. 인간(man) 같은 단어는 사람들(people), 사람(person)과 같은 단어로 대체 가능하다.<sup>24</sup> (4)의 [ST]에서 오필리어가 지칭하는 ‘he’는 ‘햄릿’이다. 하거루드의 이론에서 보자면, [TT1]처럼 ‘그분’으로 번역하여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여 남성적인 문장이 되어 버렸다. [TT2]의 동궁전하는 아직 왕자인 햄릿에게 ‘전하’라는 뜻 자체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다. 다만, [TT2]의 경우 1950년대에 출판되어 현대의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더욱이 번역 과정에서 현지화를 꾀하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TT3], [TT4]는 모두 ‘왕자님’으로 번역했는데, 연인 사이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 상황

---

24 Haugerud Joann, *The Word for Us, Gospels of John and Mark, Epistle to the Romans and the Galatians*, Coalition of Women in Religion, 1977, p. ii.

은 오피리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햄릿의 사회적인 위치를 생각한다면 ‘왕자님’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본다.

### 3.3 성적인 표현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의 몸은 그 주체가 여성이 아닌 남성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고 때로는 그들의 소유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데일리는 남성들은 자신이 권력과 자주성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과 관련된 단어를 폄하하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다지기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hag’(마귀할멈), ‘crone’(노파), ‘sprinter’(노처녀)와 같은 단어들은 현재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김종환 역시 가부장제 안에 살고 있는 남성들은 자신들이 견고하게 쌓은 세상 안에서 여성들이 일탈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들이 명예가 사라지기 때문이다.<sup>25</sup>

특히, 이러한 ‘여성의 몸’과 관련된 표현에 있어서 페미니스트 작가들은 기존의 남성작가들의 표현에 대항하고자 많은 시도를 하였다. 한 가지 예로 『신 프랑스 페미니즘(*New French Feminism*)』 선집<sup>26</sup>에서 ‘열락’이라는 단어는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 단어의 뜻이 ‘성적 향락, 환희, 황홀’로 정의되어 ‘성적 쾌락’을 연상케 하는 단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열락’이라는 단어는 위에 언급한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건강의 향유’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미의 쾌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오로지 ‘성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up>27</sup>

이처럼 셰익스피어 작품 안에서도 성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직접적으로 쓰인 단어들이 있는가 하면, 혹은 다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많이

25 김종환, 『인종담론과 성(性) 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 82쪽.

26 Marks, Elaine and Isabelle de Courtivron eds., *New French Feminisms: An Anthology*,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0, p.36.

27 Flotow Louise Von, *Translation and Gender: Translating in the “Era of Feminism.”*, Manchester: St. Jerome, 1997, p.42.

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성적인 표현들이 실제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5) [ST] Polonius ‘I saw him enter such a house of sale,’  
Videlicet, a brothel, or so forth. (p.56)

[TT1] 폴로니우스 ‘그분이 홍등가로 들어가는 걸 봤죠.’ –  
즉 사창가나 그 밖의 장소로 말이다. (p.355)

[TT2] 폴로니어스 또는 십중팔구 “영업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죠”하든가, 영업집이란 즉 갈보 집을  
의미하는 거야. (p.90)

[TT3] 폴로니어스 아님 ‘영업집에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색시집 말이다. 아무튼 그런저런 얘기를 할게다. (p.67)

[TT4] 폴로니어스 ‘수상적인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요.  
즉 가게란 유곽을 말하는 거고, 그렇고 그런 것이다.  
(p.70)

(5) [ST]의 ‘a house of sale’이나 ‘brothel’은 모두 매매춘을 하는 집을 일컫는 단어이다. [TT2], [TT3], [TT4]에서 번역된 ‘홍등가’, ‘사창가’, ‘영업집’과 같은 단어는 모두 매매춘을 일컫는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 ‘갈보집’, ‘색시집’과 같은 단어는 매매춘을 속되게 이르는 단어이므로 가급적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TT4]의 경우는 ‘수상적인 가게’라는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단어를 설명하여 번역가가 성적인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ST] Hamlet Get thee to a nunnery, go, farewell! Or, if thou  
wilt needs marry, marry a fool; for wise men

know well enough what monsters you make of them. To a nunnery, go, and quickly too. (p.101)

[TT1] 햄릿 수녀원으로 가, 잘 가. 그래도 결혼을 해야겠으면 바보와 하라고. 현명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뒷구멍으로 뭘 짓을 하는지 너무 잘 아니까. 수녀원으로,—그것도 빨리. (p.390)

[TT2] 햄릿 암자로 가십시오.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혹은 또 기어이 결혼하려거든, 바보와 결혼하십시오. 영리한 사람들은 당신과 결혼을 하면 머리에서 뿔이 나올 것을 잘 알고들 있으니까요. 암자로 가시오. 어서 빨리 가시오. (p.121)

[TT3] 햄릿 수녀원으로 가시오, 그럼 안녕히. 그래도 굳이 결혼하려거든 바보와 하시오. 똑똑한 사내들은 아내를 얻으면 자기가 곧 괴물이 된다는 걸 익히 잘 아니까. 수녀원으로 가시오—지금 당장. (p.110)

[TT4] 햄릿 수녀원으로 가, 안녕. 그래도 한사코 결혼하려거든 속맥하고 해야지. 영리한 자는 아내를 얻으면 곧 이마에 뿔이 난다고 알고 있다. (p.112)

(6)은 [ST] ‘what monsters you make of them’을 [TT1]은 ‘뒷구멍으로 뭘 짓을 하는지’, [TT2] ‘머리에서 뿔이 나올 것’, [TT3] ‘괴물이 된다는 걸 익히 잘 아니까’, [TT4] ‘이마에 뿔이 난다’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다.

(6)에서 인용한 부분은 많은 셰익스피어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수녀원 장면이다. 최민경은 셰익스피어가 의도적으로 여성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오피리어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햄릿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중적 성격이 드러나는 것인지 저마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8</sup>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의 행동을 매도하고 있는 [TT1]의 번역은 햄릿의 행동은 한 가

지 방향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또한, 김종환 역시 엘리자베스 시대에 ‘수녀원(nunnery)’이라는 단어는 유곽(遊廓)의 뜻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햄릿의 여성 혐오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sup>29</sup>

이 때문에 (6)의 번역의 경우 [TT1]이 [TT2], [TT3], [TT4]보다 조금 더 텍스트 안에서 여성혐오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번역이 되었다.

- (7) [ST] Hamlet Lady, ① shall I lie in your lap?  
Ophelia No, my lord.  
Hamlet I mean, my head upon your lap?  
Ophelia Ah, my lord.  
Hamlet Do you think I meant country matters?  
Ophelia I think nothing, my lord.  
Hamlet That's fair thought ② to lie ③ between maid's legs.  
Ophelia What is, my lord?  
Hamlet ④ Nothing. (p.111)

- [TT1] 햄릿 (오필리어 발 앞에 누우며) 아가씨,  
① 무릎 사이로 들어가도 될까요?  
오필리아 아뇨, 왕자님.  
햄릿 무릎 위에 머리를 얹겠단 말인데.  
오필리아 예, 왕자님  
햄릿 내가 무슨 흑심을 품었다고 생각했소?  
오필리아 별생각 않았어요, 왕자님.  
햄릿 ③ 처녀 다리 가운데로 ② 들어간다는 건 즐거운 생각이요.  
오필리아 어째서요, 왕자님?

28 최민경, 「햄릿과 오필리아의 관계: 수녀원 장면과 극중극 장면을 중심으로」, 『셰익스피어비평』, 제43권 4호, 한국셰익스피어학회, 2007, 790쪽.

29 김종환, 「햄릿의 심리와 여성혐오」, 『신영어영문학』, 제32호, 신영어영문학회, 2005, 103쪽.



햄릿 ④ 빈 집이니까. (p.398)

[TT2] 햄릿 아씨 ① 품 안에 누워 볼까요?

오필리아 아이 참, 전하도.

햄릿 내가 말하는 건 머리만 품 안에 둔단 말씀입니다.

오필리아 그건 좋아요.

햄릿 그러면 제가 무슨 무식한 행동이라도 할 줄 아셨던가요?

오필리아 아뇨. 별 생각 없었어요.

햄릿 ③ 처녀 가랑이 속에 ② 눕는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참  
기막힌 생각인데요.

오필리아 무엇이 말입니까?

햄릿 ④ 아무것도 아닙니다. (p.128)

[TT3] 햄릿 아가씨, ① 그대 다리 사이에 누워도 되겠소?

오필리아 안됩니다, 왕자님.

햄릿 그대 무릎 좀 베자는 거요.

오필리아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왕자님.

햄릿 내가 무슨 상스러운 짓이라도 하리라 생각했소?

오필리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시다, 왕자님.

햄릿 ③ 처녀 다리 사이에 ② 눕는다, 거 참 멋진 생각이군.

오필리아 무슨 말씀이신지요, 왕자님?

햄릿 ④ 아무 것도 아니요. (p.120)

[TT4] 햄릿 ① 무릎 사이에 누워도 되겠소?

오필리아 아니 됩니다, 전하.

햄릿 무릎에 머리만인데.

오필리아 예, 그럼.

햄릿 야한 짓이라도 할 줄 알았소?

오필리아 그런 생각 안했습니다, 전하.

햄릿 ③ 처녀 다리 사이에 ② 눅는다, 참 멋진 생각인데.

오필리아 무슨 뜻이죠, 전하.

햄릿 ④ 아냐. (p.120)

(7)에서는 4가지 단어의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①의 ‘shall I lie in your lap’의 경우에 [TT1]은 ‘무릎 사이로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④에 나오는 단어인 ‘nothing’과 맥을 같이 한다. [TT1]의 경우 ‘nothing’을 ‘빈 집이니까’로 번역했는데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nothing’은 ‘여성 성기’를, 본 예문에는 없지만 ‘thing’은 ‘남성 성기’를 뜻하는 단어였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사람들은 여성의 두 다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sup>30</sup> 따라서, [TT1]의 경우 이러한 시대상을 잘 반영한 번역이긴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햄릿의 여성혐오가 너무 잘 드러난 번역이 되어 버렸다. ② 역시 [TT1]은 ‘들어간다’로 번역하여 ‘눅는다’로 번역한 [TT2], [TT3], [TT4]에 비해 성적인 느낌이 강력하게 드러났다. ③은 [TT1], [TT3], [TT4] 모두 ‘처녀 다리 사이에’, ‘처녀 다리 가운데’ 번역하고, [TT2]만 ‘처녀 가랑이 속’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TT2]가 다른 세 개의 번역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에 번역되어 사용된 단어라고 생각된다. ④의 경우 앞서 언급한 [TT1]을 제외하고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다’ 정도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원문의 여성혐오가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보인다.

성적인 농담에는 본래 가지고 있는 뜻 외에도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많이 있다. 특히 (5)에서 번역된 단어인 ‘색시집’, ‘갈보집’처럼 여성과 성이 만났을 때의 이러한 표현은 더욱 강력해짐을 알 수 있다. 특히나 햄릿은 극 중에서도 몹시 말장난을 즐기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번역가의 젠더에 대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고, 독자 역시 텍스트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페미니즘 번역에 대한 정선혜의 설문조사 결과<sup>31</sup>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제일

30 황광수, 『셰익스피어: 런던에서 아테네까지, 셰익스피어의 450년 자취를 찾아』, Arte(북이십일 아르테), 2018, 156쪽.

31 정선혜, 「페미니스트 번역이론과 『주홍글자』 번역 양상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8.

좋은 번역으로 꼽은 것이 비속어 사용 및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한 주의, 상스럽지 않은 표현 사용 등 특정 성별을 비하할 수 있는 번역을 배제하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성적인 표현은 원문에 충실할 경우 자칫 위의 설문조사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번역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

(8) [ST] Ophelia To-morrow is Saint Valentine's day,  
 All in the morning bedtime,  
 And I a ① maid at your window,  
 To be your Valentine.  
 Then up he rose, and donned his clothes,  
 And duffed the chamber door,  
 Let in the ② maid, that out a ③ maid  
 Never departed more. (p.164)

[TT1] 오필리어 내일은 밸런타인 명절날  
 이른 아침 때 맞춰  
 난 그대의 창 밑에 ① 처녀로  
 애인 되려 서 있네.  
 그대는 일어나 옷 걸치고  
 방문을 열었는데  
 들어갈 때 ② 처녀가 나올 땐  
 절대 ③ 처녀 아니라네. (p.438)

[TT2] 오필리아 내일은 발렌타인 명절날,  
 된새벽 동트는 아침에  
 창 밑에 가 서쥬 님 뵈려  
 이 몸은 당신의 발렌타인.  
 사내는 일어나 옷 입고  
 나와서 방문을 열어 줘,

② 아가씨 방으로 들어가  
나갈 땐 ③ 아씨가 아니야. (p.164)

[TT3] 오필리어 내일은 성 발렌타인 축일,  
동녘 하늘 밝아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나 사랑하는 님 창 밑에 서서  
그대의 발렌타인 되려네.  
내 님 일어나 새 옷 갈아입고  
방문 열어 주네  
들어갈 땐 ② 처녀였으나 나올 땐  
③ 처녀 아니네. (p.172)

[TT4] 오필리아 내일은 성 발렌타인 명절날  
아침 일찍부터  
나는 임의 창가에 선 ① 처녀요  
당신의 애인이 되요  
임은 일어나 옷을 걸치고  
방문을 열어 주니  
들어간 ② 처녀가 나올 땐  
③ 그 꽃잎은 떨어졌어요. (p.173)

[ST]에서 3번 반복되는 ‘maid’의 뜻은 ‘처녀’, 또는 ‘아가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①, ②에 대해서 모든 번역이 ‘처녀, 혹은 아가씨’로 번역을 했다. 다만, [TT4]의 경우만 ③에 대한 번역을 ‘그 꽃잎은 떨어졌어요’라고 옮겼다. 사실 ‘처녀’라는 단어에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 여자’를 일컫는 의미 외에도 ‘남성과 관계를 가지지 않은 여성’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되기에 자칫 본연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거나 여성을 하대하는 뜻으로 이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성차별적인 단어를 좀 더 줄일 수 있다. 또한, [TT4]의 ③의 경우 지나치게 이미지화시킨 번역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번역 작업은 출발어와 도착어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지만 단순히 단어만을 옮기는 작업으로 한정시킬 수는 없다. 로만 알바레즈와 카르멘 아프리카 비달(Román Álvarez & M. Carmen-África Vidal) 역시 “번역은 ST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원본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ST는 번역가의 이데올로기, 시기, 경제적인 이유와 맞물려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sup>32</sup>고 주장하였다. 이는 번역가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독자가 받아들이는 인물의 성격이나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 4 결론

최근 사회적 관심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햄릿』의 번역본 4종 비교를 통해 성차별적인 단어가 어떤 식으로 번역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 결과<sup>33</sup>에서 번역가의 젠더가 실제 번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2명의 남성 번역가, 2명의 여성 번역가의 번역본을 텍스트로 정하여 호칭과 성적 표현에 대해서 분석했다.

호칭과 관련된 번역의 경우 여성을 비하하거나 하대하는 호칭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호칭과 관련된 예문 4개 중 3개가 오필리어를 부르는 말이었다는 점에서 여성을 부르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먼저, ‘sister’의 경우 ‘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도착어에 대한 이미지 왜곡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girl’의 경우

32 Roman Alvarez and M. Carmen Africa Vidal,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Multilingual Matters, 2008, p.17.

33 권오숙, 「성차에 따른 성담론 번역 양상 비교」,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유미향, 박정윤, 이영훈,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번역본 비교」, 『번역학연구』, 제13권 5호, 한국번역학회, 2012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일부 번역에서는 ‘계집’으로 번역, ‘mistress’는 ‘딸년’으로 번역하였다. 햄릿을 칭하는 단어였던 ‘he’는 ‘그분’이라는 번역으로 햄릿과 오�필리아가 연인으로 동등하게 만나고 있는 관계가 아닌 권력적 상하관계로 만들었다.

성적인 표현과 관련된 번역으로는 특정 단어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 해석한 번역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속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혹은 단어의 의미를 순화하여 하는 번역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남성번역가의 번역본인 [TT1], [TT2]의 경우 여성을 하대하거나 남성 지배적인 번역이 많았던 반면, 여성번역가의 번역본인 [TT3], [TT4]은 위의 두 번역본과 반대 양상을 보여주며 여성친화적인 번역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권오숙(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언어 역시 끊임없이 변한다. 혹자는 지나친 번역가의 개입은 본래 원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번역에는 번역가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 원문에 대한 다양한 재번역이 나와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William Shakespeare, *Hamlet*, ed., Burton Raffle, Yale University Press, 2003, 28, 33, 34, 56, 67, 101, 111, 164쪽.

(<https://ebookcentral.proquest.com/lib/nlkr-ebooks/reader.action?docID=3420279>)

\_\_\_\_\_, 권오숙 역, 『햄릿』, HUiNE, 2018, 39, 44, 45, 67, 78, 110, 120, 172쪽.

\_\_\_\_\_, 신정옥 역, 『햄릿』, 전예원, 2007, 41, 46, 70, 81, 112, 120, 173쪽.

\_\_\_\_\_, 최재서 역, 『햄릿』, 울재, 2014, 71, 74, 90, 98, 121, 128, 164쪽.

\_\_\_\_\_, 최종철 역, 『셰익스피어 전집 4』, 민음사, 2014, 333, 337, 338, 355, 364, 390, 398, 438쪽.

#### 단행본

김미현 외 지음,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1』, 보고서, 2013, 259, 294쪽.

김중환, 『인종담론과 성(性) 담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 82쪽.

안미현, 『경계횡단으로서의 번역』, HUINE, 2017, 7쪽.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창비, 2005, 546쪽.

황광수, 『셰익스피어: 런던에서 아테네까지, 셰익스피어의 450년 자취를 찾아』, Arte(북이십일 아르테), 2018, 156쪽.

시몬 드 보부아르, 이희영 역, 『제2의 성 I』, 동서문화사, 2018, 340쪽.

조르주 무넝, 선영아 역, 『부정한 미녀들』, 아카넷, 2015, 135-137쪽.

Barthe Roland, *Image-Music-Text*, Trans. Stephen Heath, London: Fontana, 1977, pp.143, pp.146-147.

Brown R & Gilman A.,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ed., Thomas A. Sebeok, *Style in Language*,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60, pp.253-276.

Duras Marguerite, “An Interview”, eds., Elaine Marks and Irene de Courtivron, *New French Feminisms*, trans. by Susan Husserl-Kapit,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0, p.174.

Flotow Loiuise Von, *Translation and Gender: Translating in the “Era of Feminism.”* Manchester: St. Jerome, 1997, pp.20, pp.42.

Lotman Yuri M., *Universe of the Mind. A Semiotic Theory of Culture*, Translated by Ann Shukma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0, p.68.

Haugerud, Joann, *The Word for Us, Gospels of John and Mark, Epistle to the Romans and the Galatians*, Coalition of Women in Religion, 1977, p. ii .

Holmes J.,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London: Longman, 2001, p.3.

기타 자료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네이버 사전, <https://dict.naver.com/>

## Abstract

An Analysis of Linguistic Sexism in Korean Translations of Shakespeare's *Hamlet*

Hong, Eunyong

The translated works of Shakespeare into Korean have been chiefly done by male translators for a long time. Because of this reason, Shakespeare's works have many patriarchal elements, and this has made audiences read translated works that have biased viewpoints for a long period of time.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how sexist words were translated in the work through comparison with a Korean version of Shakespeare's *Hamlet*.

Accordingly, the paper attempts to identify how the translations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gender of translators and their research tendenc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male translators carried out translations while expression sexist words directly, yet female translators expressed sexist language more indirectly so that the sexist factors of the text might not be as easily revealed.

Therefore, contemporary translation no longer adheres to traditional concepts of word-to-word translation but acknowledges the power relationships hiding in the text. Given this, translato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various emerging translations and adopt contemporary phraseology.

Key words: *Hamlet*, Shakespeare, gender translation, feminist translation, women's language

본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